

“질병차단은 양계인이 지킬 제 1의 원칙”



신동현

· 협회 전무/농업전문 PD
· 저서 : 신PD도 언젠가는 농촌간다
 이제는 농사도 따따를 벤처다

당뇨병은 난치병 중에 하나다. 너무 먹고 마시고 영양과잉으로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사치병이라고 하던가? 과거에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이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당뇨병하면 공포의 질병으로 벌벌 떤다. 우리나라 100명 중에 8~9명이 당뇨병환자라고 한다.

요즘 양계에는 어떤 질병이 공포의 질병이 될까?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 어찌했던지 요즘 수십 종의 질병들이 양계질병으로 맴돌고 있다고 한다. 어릴적 마당에는 늘 닭들이 무리를 지어 노닐었다. 수탉이 앞장서면 암탉은 병아리들과 함께 푸성 귀 밭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종종종 모이를 쪼았다. 흙으로 목욕까지 하면서 건강관리까지 한다.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해매고 돌아온 닭들에게 사람들은 보리쌀이라도 한줌쯤 던져준다. 닭에게 내려주는 하루밤 행복권이다. 그러니 닭들에게 질병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반세기가 지났다. 이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닭들도 사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닭장 같은 밀폐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산다면 닭들은 현대화된 아파트형 닭집에서 산다. ‘무창계사’는 아파트형 닭집이다. 말 그대로 창이 없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 키의 2배 높이에 닭집이 6층까지 꾸며진 곳도 있다. 공기순환도 기계식이고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 쥐

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닭집 가격도 강남의 아파트정도의 비용 이상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무창이라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놈이 있다. 질병이다. 각종 질병이 밀폐된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그리고 괴롭힌다. 어떤 경우는 일순간에 양계업을 황폐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뇨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과 같이 닭들도 ‘무창계사’의 고급형 닭집에 살면서 별의별 질병의 고통을 받는다.

“질병이 양계장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생산원가 낮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란값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차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요” 경기도 이천에서 재란 양계를 하시는 한희 협회이사는 “질병차단이 양계업에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다. 그는 늘 비상상황과 같은 긴장 속에서 양계업을 한다. 농장 앞에는 아예 소독하는 사람이 한명 전담으로 서 있을 정도다. 질병차단을 제 1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평택에 모 병아리 부화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잠깐 병아리가 생산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방문한 것인데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분무소독은 물론 비누로 물 샤워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자니 속옷은 물론이고 양말까지 벗어야 한다.

“아, 이렇게 우리 양계인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생각했다. 견학을 배려한 그곳 회장도 함께 발가벗었다. 그리고 비누칠하고 샤워를 했다. 예외가 없다. 이는 부화장 근무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한번 외출했으면 반드시 샤워로 몸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차단이 우리 양계농민들이 꼭 지킬 원칙이라면 양계의 기본은 병아리란 생각이 든다. 기본이 좋아야 농사가 수월해지고 신바람이 난다. 질병발생도 어찌 보면 기본이 나쁘기 때문이다. 병약한 병아리를 만나면 내내 질병이 달라붙고 질병에 시달린다. 불을 보는듯한 이치다. 또 약값이며 낭비되는 사료값 등 손해도 엄청 크리라 생각된다.

언젠가 법정전염병인 뉴캐슬병이 전국을 휩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병아리 품귀현상이 돌고 신란율은 절반이하로도 떨어진다. 공기전염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지만 차단 못하면 그 피해는 농가로 바로 돌아간다. 이제 4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듯 양계인들은 질병차단에 원칙을 세워야한다.

거제도에서 육계를 하는 김영근 협회이사는 지금도 모 부화장과의 소송에 휩싸여 있다. 벌써 3년째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잘못은 짚어야 해요. 병아리 몇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야단이냐고 하지만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앞으로 건강한 병아리가 탄생 됩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투쟁하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다. 양계발전에는 원원 전략이 필요하다. **양계**